

광주시, 24시 안심병원 등 어린이 의료체계 구축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광주 북구 본촌동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조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가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운영·소아청소년 공공의료체계 전담팀 가동 등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호남권역재활병원

에서 현장브리핑을 열고 광주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조성계획 등 어린이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소아청소년병원 ‘오픈런’이 빛어

안심병원 24시까지 운영...이후시간 응급의료체계 연계 아픈아이병원동행·입원아동돌봄 등 3가지 핵심사업 추진

지는 진료대란과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에 부모들의 애가 타는 게 현실”이라며 “지역 의료계와 협업을 통해 어린이 의료체계 모델을 구축하고,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결합한 24시 어린이 안심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24시 어린이 안심병원은 민선 8기 손에 잡히는 변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사업이다.
 24시 어린이 안심병원은 평일과 휴일에는 24시까지 운영하고, 24시 이후에는 응급의료체계에 연계한다.
 평일과 휴일에 24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지정·운영한다. 이들 의료기관에는 인건비와 시설개설자금,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소아환자의 외래진료를 24시까지 제공함에 따라 각종 소아환자의 야간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각종 소아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분산

할 수 있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5월 중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공모계획을 수립, 6월까지 선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의회·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소아청소년 공공의료체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가동한다.
 보건복지부가 공모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유치에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하면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동네병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실질적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를 통해 동네어린이병원·24시 어린이 안심병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어린이 안심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운영과 함께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동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 특화사업으로 운

영 중인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를 내년부터는 광주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4-18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담인원을 투입, 병원동행이 필요한 가정에서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에 시범 운영한 뒤 서비스 수요에 따라 2025년부터 전담 돌봄비를 자치구별로 지정하는 등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간병과 정서적 놀이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도 연간 이용아동 750명 수준에서 1000명까지 확대한다. 2019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이 서비스는 시민 만족도가 높고 상시 대기자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연간 지원 시간을 15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리는 등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 시장은 “민선8기 광주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넘어 손에 잡히는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지정·운영 등 3가지 핵심사업 추진으로 어린이 공공의료체계의 큰 우산을 만들겠다. 앞으로 돌봄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손에 잡히는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총선 1년 앞두고 민형배 민주당 복당...지역 정가 미묘한 파장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지난해 검찰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검수완박’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바닥 뒤집듯 함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동나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이제는 국민과 당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의 복당은 이날 최고위원회 의결에 앞서 전날 중앙당 당원자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민주당 당규 11조는 현역 의원의 복당원서

는 중앙당에서 접수받고 중앙당 당원자적심사위원회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당규상 탈당 1년이 지나면 복당신청이 가능하고, 민 의원은 지난 20일로 탈당 만 1년을 채운 상태다.
탈당 1년 채우고 다시 민주당으로...당의 요청으로 복당 ‘10% 감산’ 면제·권리당원 모집 배려한 듯 지역구 술렁 일부 시민단체 “반헌법 행위”, 국민의힘 “뻔뻔한 귀가”
 이번 복당은 친이재명계인 민 의원의 탈당에 일종의 ‘정치적 부채의식’을 느낀 박 원내대표가 인기만료를 코 앞에 두고 복당을 추진했고 이재명 당 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 의원의 ‘개별 신청’보다는 ‘당의 요청’으

로 복당이 이뤄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친명계 지도부의 배려와 함께 공천 ‘감산 페널티’를 면제해주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당규상 당의 요구없이 스스로 복당을 신청할 경우 공천경선 과정에서 10%의 감산을 적용 받지만, 당

을 올리고 있다.
 ‘6개월 이상 당비 납부’를 전제조건으로 한 권리당원 확보 시한은 올해 7월 말로 예상되고 있어, 복당을 더 늦출 경우 권리당원 모집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 상황이다.
 복당에 대한 정가 반응은 다양하다.
 민주당 내 한 입지자는 “검수완박이라는 대의를 지킨 만큼 복당은 당연하고,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라면서도 “돈부투 사건과 사법리스크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당의 요청으로 복당하는 모양새를 갖춰 아쉬움이 없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지자는 “5. 6월께 복당한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빨라졌다”며 “공천투표권을 쥐고 있는 권리당원 모집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반면 광산시민연대는 복당 결정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 행위”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복당 후 지역구위원장 자격으로 민주당 광주시당 상무위원으로 자동 참여하게 돼 비이재명계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과 역학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산을 출마를 염두에 둔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광산에는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재도전을 밝히며 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어게인 2020’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정재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일찌감치 출마표를 던지고 표발을 누비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태욱 광산을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체비를 마치고, 본선 경쟁을 예고했다. 전주연 민주당 광주본부 사무처장과 김용재 전 중소기업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도 각각 진보당과 정의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김재환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